

# 위령의날 셋째미사 [11월 2일]

시편 23(22), 1- 3. 4. 5. 6



(후렴) 주 님 은      나 의 목      자,      아 쉬 울 것 없 어      라.



1.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-     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 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 어 -

2.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      도 -      당신 함께 계시오니  
두려울 것 없나이 다. -

3. 원수들 보는 앞에      서 -      제게 상을 차려 주시      고 -

4. 제 한 평생 모든 날      에 -     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      니 -



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 고 -    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 
바른 길로 이끌어 주 시 - 네.

당신의 막대와 지팡      이 -      저에게 위안이 되나      이 - 다.

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      니 -     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      읊 니 다.

저는 오래 오      래 -      주님 집에 사오      리 - 다.